

KT 수장 바뀌 2라운드 SKT



이석채 후보

국내 통신업계의 양대 산맥인 KT와 SK텔레콤의 수장이 모두 바뀌면서 내년 통신시장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SK그룹은 인사로 통해 최태원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만원(56) SK네트웍스 사장을 SK텔레콤 신임 사장에 내정했다. 앞서 KT는 지난 9일 이석채(63)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사장후보로 내정했다.



정만원 내정자

'통신 공룡'의 맞대결? 유무선 무한경쟁 돌입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적잖이 긴장하고 있다. 내년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경영 환경이 불투명해진다 주파수 경매제 실시, KT-KTF 합병,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허용 등 통신시장을 뒤흔들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어 양사의 힘겨투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사업부장, SK 전무, SK글로벌정상화추진본부장 겸 에너지판매 부문사장, SK네트웍스 사장을 지냈다.

이 사장 후보는 해박한 경제이론과 명쾌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업무추진력과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많다. 또 정부 각 부처에 인맥이 두텁다. 통신이 규제산업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KT의 밀월관계를 점치는 시각이 많다.

이같은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고심 끝에 정 사장을 SK텔레콤 사장으로 낙점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다. 조용한 일처리가 돋보이는 김신배 전 사장보다는 SK글로벌 사태와 관련해 정 사장의 리더십과 돌파력이 향후 KT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예이다. 또 독립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다소 어수선한 SK텔레콤의 조직분위기를 추슬러 내부역량을 결집하고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정 사장의 역할이 요구됐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KT-KTF 합병 이통시장 총공세

SKT- 초고속 인터넷·IPTV 육성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유·무선 시장에서의 경쟁 뿐만 아니라 융합시장의 경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재편이 예고되는 내년 경쟁 상황에서 한발 물러서면 끝이라는 인식이 시장 전체에 퍼져 있다"며 "차질 현안에 따라 두 회사간 치열한 싸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이들 두 신임 사장들의 업무스타일 또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KT가 IPTV·와이브로 등 신성장 사업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동시에 집적회 등에서 경쟁사의 공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지, SK텔레콤 역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방어와 초고속 인터넷·IPTV 등에서의 공세를 통해 어떻게 점유율을 끌어올릴지, 통신업계 두 공룡의 한판 경쟁이 주목된다.

KT의 이석채 사장후보와 SK텔레콤의 정만원 사장은 공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사장 후보는 행시 7회로 30년 가까이 공직에 있으면서 대통령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부단장,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농림수산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반면 정 사장은 행정고시 21회 수석합격자로 문교부와 동력자원부를 거친 뒤 통신산업부 구조통합과장을 끝으로 94년 유공에 입사, SK 고객사업개발본부장, SK텔레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타 과학자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과학 콘서트'



영국 왕립연구소의 크리스마스 과학강연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극장식 과학강연 '2008 크리스마스 과학 콘서트'가 지난 19~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과학 콘서트에는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박사, 단국대 의예과 서민 교수, KAIST 정재승 교수, 홍익대 박경미 교수 등 스타 과학자들이 우주과학, 의생명, 뇌과학, 수학에 대해 다양한 실험장치를 이용, 쉽고 재미있게 풀어줬다.

우익람기자 jwri@kwangju.co.kr

정보 TIP

무료 백신 'V3 라이트' 서비스

안철수연구소는 최근 개인용 무료백신 'V3 라이트'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V3 라이트 정식 버전은 시험 버전에 비해 엔진 업데이트 속도가 한층 빨라졌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치를 V3 라이트를 통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시험 버전 이용자는 정식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돼 삭제 및 재설치 과정 없이도 정식 버전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KT, 영상폰 가격 할인 이벤트

KT는 신규 및 기존 인터넷전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영상폰 가격 할인 무료 영상통화, 온라인 이벤트를 통한 다양한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영상단말기를 10만원 할인해주고, 가입자간 6개월 영상통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인터넷전화 광고 동영상 본 뒤 온라인 이벤트 '퀴즈 버라이어티쇼', '감동 버라이어티쇼'에 참가해 퀴즈 정답을 맞추면 LCD TV, 닌텐도DS, 영화예매권, 문화상품권 등을 주고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 고객에게는 냉장고, 음식물처리기 등 경품 기회가 마련된다.

삼성 MP3플레이어 'P3' 출시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에 이어 MP3 플레이어에서도 스크린 접촉만으로 조작은 물론 진동까지 느낄 수 있는 '햅틱' 기능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최근 햅틱 사용자환경(UI)을 적용한 MP3플레이어 'P3'(모델명 YP-P3)를 출시, '엡 홈페이지



(www.yepp.co.kr)를 통해 온라인 판매 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블랙과 실버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는 P3의 가격은 메모리 용량에 따라 4GB, 8GB, 16GB짜리가 각각 23만9천 원, 27만9천 원, 32만9천 원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테리아로 암 치료 로봇 만든다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 박종오·박석호 교수 팀

내년부터... '의료용 융합기술' 개발 세계 첫 시도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진 박테리아로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 로봇을 만든다.'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종오·박석호 교수팀이 박테리아를 이용한 암 치료용 로봇 '박테리아로봇'(Bacteriobot·박테리아와 마이크로로봇의 합성어) 연구팀이 만든 신조어(사진) 개발에 나섰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래융합 파이오니어 기획 사업의 하나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추진된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로봇 개발 경쟁은 세계적으로 치열하지만 초소형 로봇 기술과 박테리아를 융합, 의료용 개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전남대를 비롯해 서울대·KAIST·한양대·서강대·KIST 유럽 등이 참여하고 있다.

◇로봇 크기 0.001~0.01mm

'박테리아로봇'은 질병 치료용이다. 이 로봇은 내시경으로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고, 암 세포 등 환부에만 미사일 식으로 약물을 집중 투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일반 항암제의 경우 암 세포 주변의 멸절된 세포도 손상을 입히는 등 부작용이 많았지만 박테리아로봇은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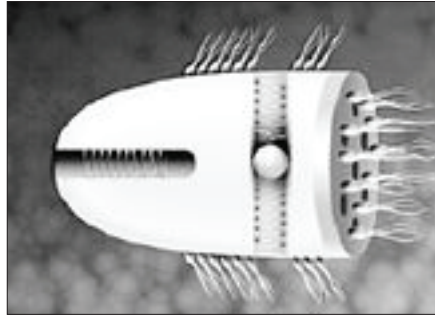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하고 있다.

연구팀이 구상하는 박테리아로봇은 약물을 실은 초소형 캡슐 부분과 캡슐을 운반하는 박테리아로 나뉜다. 박테리아들이 캡슐을 밀어 암세포 등 환부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혈관 등을 뚫고 환부로 갈 수 있게 하려면 로봇은 0.001~0.01mm 크기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너무 크면 혈관에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몸 속으로 주입한 로봇은 환부에 도달하면 약물을 방출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분해된다.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종오 소장(기계시스템공학부 교수)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로봇 개발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으나 초소형 전자기술과 박테리아를 융합한 연구 방향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BT·NT·RT 융합기술의 실험대

박테리아로봇은 이동성 박테리아의 유전자 조작 기술(BT)과 마이크로시스템 기술(NT)의 융합을 기반으로 이동성·지향성·형광발현성 등 박테리아 특성과 보존성·생분해성 등 기능성 마이크로구조체의 특성을 이용해 무해 이동성 의료용 마이크로로봇



기술(RT)을 결합한 최첨단 신기술의 집합체다. 이 로봇은 생명공학과 초소형 전자·기계공학, 영상공학 등 융합 기술의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테리아로봇 개발이 성공하면 2019년 5천 700억 달러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테리아로봇의 성능은 박테리아의 조작과 조종에 달려 있다. 박테리아는 대부분 독성이 없고 제멋대로 활동한다. 이 때문에 박테리아를 로봇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독성을 극소화해야 한다. 연구팀은 독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유전자 조작 기법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약물을 싣고 갈 초소형 구조체에 박테리아가 잘 달라붙어 원하는 목표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박테리아와 캡슐이 따로따로 작동하면 낭패다. 또 외부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박테리아에 형광성을 첨가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like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and 제일시네마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